

고조선시대 수막새에서 올드네게브 문자 발견

3천 년 전 와당에 성경 사사기 18장 내용 새겨져 있어



고조선 건립 당시 신전 지붕에 올드네게브 문자를 새긴 수막새로 장식

지금으로부터 3천2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방에서 사용된 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진 〈꽃무늬 수막새〉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이우치실에 전시되고 있다. 〈꽃무늬 수막새〉가 고구려시대의 유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고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 〈꽃무늬 수막새〉는 열에 구워진 붉은 색의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에, 「열 발광 연대측정법(TL : Thermo Luminescence)」에 의해 정확한 제작연대를 산출할 수 있겠다.

올드네게브 문자의 기원은 노아홍수 이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사용했던 원시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4천 년 전에 사용된 원시가나안 문자와 3천 2백 년 전에 사용된 올드네게브 문자는 거의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올드네게브 문자를 어느 민

족이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성서 속의 유명한 인물이 되는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 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시나산이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 장소로 유명한 시나이반도에 위치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이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으로 판명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성경에서 말하는 시나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광야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 널려져 있는 바위에 그들이 사용한 문자를 새겼던 것이다. 그 문자가 바로 올드네게브 문자로 확인되었다.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 올드네게브(Old Neggev)어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벌여왔던 단지파 민족은 삼손 장수를 잃고 가나안 소라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 전의 일이다. 한반도에 도착한 단지파 민족은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 수도에 제일 먼저 신전(神殿)을 건설하면서 그 신전의 지붕은 기와로 장식하되 기와끝 끝에 보름달 모양의 원판이 달린 수막새(또는 와당)로 마감하였다.

꽃무늬 수막새에 성경 사사기 18장의 내용이 새겨져 있어

고조선 건국 당시에 제작된 수막새에 꽃무늬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기에, 〈꽃

무늬 수막새〉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 그 꽃무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올드네게브 문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한때 서울대 종교철학과 신사훈 교수는 이 〈꽃무늬 수막새〉에 새겨진 문자가 고대 이스라엘민족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임을 직감하고, 수막새의 우측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다”, 수막새의 좌측은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라고 해석하였지만 국내외의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써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꽃무늬 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고조선을 건국한 선조들이 〈꽃무늬 수막새〉를 통해 후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임에 분명하다. 〈꽃무늬 수막새〉에 담긴 메시지의 해석은 그림으로 대신한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한 모세!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함께했다는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꽃무늬수막새〉에 새겼던 것이다. 그리고 단지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내용도 새겨져 있다.*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단지파의 무장한 6백 명이 십계명을 얻은 미카 신전의 우상을 보고 조롱하자, 아합에서 잘한다고 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한민족에서 드러난다

천손민족이여! 깨어나 빛을 발하라

바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무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되는 말이다. 참으로 올바른 마음, 바람직한 뜻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힘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힘들이 모아 발휘된다면 그 결과는 인류와 지구촌 곳곳에 악한 영향, 파괴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선한 힘이 모여져서 올바른 영향, 지상천국과 같은 세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기대와 염원은 과거 역사를 통해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술하게 벌어진 일들이었음을 우린 자식으로 학습하고 배워왔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누구나 하나되고 통일된 세상을 바라지만, 세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육체와 영혼, 물질과 의식, 현세와 내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등 분열과 분리된 세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된 생명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의 순환적 흐름을 막아 버리면, 사람의 기

가 막혀 병이 생기듯이 우주적 생명은 파괴와 재앙으로 화답하게 된다. 지금의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국가와 민족 간의 첨예한 대립, 전쟁의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피가 막히지 않고 잘 순환하여야 하듯, 서로 단절되고 불통하던 딱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대 평화와 행복, 자유 세계의 대동(大同)의 열린 장(場)으로 성큼 나아와야 하겠다. 이 세계의 평화와 행복은 정치적 경제제 제도적 종교적 변혁만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각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양심으로 지혜와 현명한 처신의 술선수범만이 그 답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인내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세계를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건설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천손민족이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사람은 머리가 우수하고 인정이 많고 정의감이 투철한데, 다 이런 것은 선한 하나님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인류가 원하고 바라던 지상천국 건설을 주도할 대업을 주도해 나갈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호사다

마(好事多魔)라고 한국 사람들을 욕심과 이기심에 빠뜨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악마의 간악한 꾀계에 의하여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 있는 상태일 뿐이다.

일단 한국 사람이 먼저 한번 정신 차리게 되는 날, 선한 하나님의 뜻은 급속도로 빠르게 실현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민족의 부흥을 예언하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

구미산수 좋은 승지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어 오만년지 운수로다. 나도 또한 신선(神仙)이라 비상천(飛上天)한다해도 이내 선정 구미응당 다시 보기 어렵다. -수운(응당유사(龍潭遺嗣)), 응당가-

인지(認知)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相兪)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위를 분간하여 서로 생불(生佛)이 되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며…… -소태산, 〈대종경(大衆經)〉, 전망품 18장.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수순의 과정의 공통된 역사법칙성을 규명한 방대한 그의 저술 〈역사의 연구〉에서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상을 예견한 바 있다. 성경에서도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창세기 9장 26-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케하시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아벳은 백인종, 가나안은 흑인의 조상이 각각 된다. 백인종은 한 때 물질적으로 창대하나 결국은 심오한 정신문명을 가진 황인종에게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다.

한민족이여!!

이제 깨어나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선한 양심의 피가 뜨겁고도 강하게 우리 민족 속에 끓들거리고 있다. 이 땅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지상천국)을 열여주시게 할 섭리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9]

‘자존심(自尊心)은 나라는 의식(意識)에서 나온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선이 나오지 아니하고 악이 나오는 것은 그 뿌리(나라는 의식)가 악이라는 증거다. 자존심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악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심은 개인의 고통을 일으키지만, 집단적인 자존심은 집단적인 싸움을 일으킨다.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자행되는 것이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인류 전체를 죽음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원흉이며, 6,000년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서서 인간의 마음을 쫓고 서로 죽이려 했던 철천지수원인 것이다.*

이기는 삶

물처럼 현명하게

* 물이 갖는 칠덕(七德)

첫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謙遜)”

둘째,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智慧)”

셋째,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包容力)”

넷째,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融通性)”

다섯째, 바위도 뚫는 “인내(忍耐)와 끈기”

여섯째,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勇氣)”

일곱째,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

는 바르게 다스려짐을 좋아하고 일에 는 능숙함을 좋아하니 늘 때를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직 서로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느니라.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순응한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골이진 곳을 따라 흐르며 벼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나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이다. 사람도 이 물과 같이 모나지 않고 유연하게 다양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정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용이 있게 대처하며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한 조직의 리더라면 엉당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옳은 결정은 직원의 공으로 돌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조그만 공을 가지고 부하 직원과 다투다면 어찌 아하며 어진 것을 배풀기를 좋아하고 맑은 마음이 있는 것을 좋아하며 정치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이긴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제단에 오면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소멸시키므로 마귀의 시체가 되는 시커먼 죽은 피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오만가지 병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태풍은 동해 바다에서 기역자로 쭈어 둘러 치는 것도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상대의 일기예보가 나온 다음에 비를 못 오게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본인의 역사를 하므로 우주에 가득 퍼져서 공기를 차갑게 하므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썩은 듯이 날이 개이며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5년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제69호 1986년 8월 17일자 승리신문에서 인용).”